

## 전환의 시대, 행성 의식의 미래

2024.11.29

제1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기념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 The Elders에 경의를 표하며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지난 9월 20일 미원평화상 수상자 발표에 이어 시상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The Elders가 미원평화상 첫 수상기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류사회를 위한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엔 많은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The Elders를 대표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 총장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갈등과 분쟁 해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모님도 함께하셨습니다.

환영과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특별 대담에 참여하실 Mary Robinson 전 의장님께서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일랜드 대통령,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을 역임하신 Robinson 전 의장님께서선 여성과 시민의 권익, 취약 계층을 위한 기후 정의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새로 중책을 맡으신 Juan Manuel Santos The Elders 의장님.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The Elders 회원 여러분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The Elders 회원 여러분 모국의 주한 대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간 성원과 후의를 베풀어주신 재미 미원평화상 후원재단 노상석 이사장님과 임원 내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늘 모교를 위해 헌신해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동문입니다.

‘평화의 지구’ 조각상을 만들어 주신 박은선 작가님 내외분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함께한 경희학원 각급 기관 기관장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성원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특별한 소개가 필요한 참석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세계평화의 날 기념 영상 콘테스트에서 영예를 안은 경희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경희대 재학생들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미래를 향한 희망의 여정에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조금 전 김원수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원평화상 수상자인 The Elders는 시대의 난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온 기관입니다.

인권과 취약 계층.

기후 변화와 공공보건.

폭력적 갈등과 핵 확산.

파괴적 과학기술의 위험….

이 시대 지구 사회 난제를 헤쳐가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The Elders의 노고와 헌신은 설립자 넬슨 만델라 선생의 삶의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와 연결,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인간 내면의 성찰.

시련과 좌절의 순간을 맞아 용기를 잃지 않는 불굴의 실천 의지.

그 정신이 The Elders의 숭고한 노력에 살아 숨 쉰다고 생각합니다.

만델라 선생이 27년이란 긴 투옥 생활 동안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던 시 한 구절이 The Elders의 숭고한 노력을 표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The Elders는 때로는 부당한 권력에 맞섰습니다.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 갈등과 분쟁 지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대의 도전 과제를 위해, 소외와 절망에 쌓인 취약 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The Elders의 숭고한 노력에 깊은 사의를 전합니다.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 평화의 전당엔 특별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20여 년의 기나긴 공정 끝에 1999년 완공된 이 건물 로비 상단엔, 보시는 것처럼,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경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영원한 가치.  
그 가치의 지향을 상징하는 문구를 준공식에 맞춰 새겼습니다.

이 문구의 역사적 배경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으로 국토 전역이 포화와 총성으로 휩싸인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70달러가 채 되지 않는 나라.  
피난처 부산 동광동에 세워진 판자 교사 3채.  
교직원 5명, 재학생 120여 명.  
그 역사의 현장에서 경희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  
지난 75년간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온 경희 정신입니다.  
이념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이 인간답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문화 세계.  
이를 통해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 올리자는 것이 경희의 설립 정신입니다.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설립자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문화세계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 책은 1951년, 치열한 전쟁 중에 출간됐습니다.  
출판 후 수년이 지나 필화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인간 양심의 원천을 깊이 성찰해 새로운 인류사회의 지평을 열어가자.'  
'이념과 국경을 넘어, 세상 모든 이들이 어우러지는 문화 세계를 이룩하자.'  
그 생각과 함께 서술된 “인류사회의 공존공영,”  
“학문과 양심의 자유.”  
그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관점으로 생각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화세계의 창조>는 사상 시비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침예한 이념 대결의 정치.  
경직된 현실 속에서 순탄치 않은 세월을 헤쳐가야 했습니다.

지난 세월 경희는 더 나은 인간의 미래를 위한 역사의 향로를 소중히 가꾸어 왔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의 번영을 위한 농촌운동과 잘살기 운동.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는 수림 조성 운동.  
국제 사회의 인류 보편 가치 구현을 도모하는 대외 활동.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모색한 세계 시민사회 활동.  
경희의 그런 노력엔 인간과 사회, 자연과 문명의 우주적 맥락을 조망하는 전일사관(全一事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상관상제(相關相制)” “상관상승(相關上乘)”의 전일적 우주에서 역사는 창성과 변화의 현묘한 조화를 거듭한다.’

그 사유의 지평이 경희의 길을 열어 왔습니다.

경희의 설립 사상은 이를 ‘주리(主理)’와 ‘주의(主意)’의 세계가 교호(交互)하는 “전승화(全乘和)”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2011년 9월 14일, 대학 총장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UNAI(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에 즈음해 국제회의를 함께 개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경희의 설립자가 1981년 유엔 제정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Give Peace Another Chance”를 주제로 유엔본부에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뉴욕과 이곳 평화의 전당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유엔 관계자분들과 경희대학교 재학생 3,000여 명이 2시간여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반 총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귀국 후 다음 날, 투병 중이신 설립자 병실을 찾았습니다.

출국 전 간호사분께 컴퓨터 화면을 병상 곁에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당일 실황 중계가 이어지자, 눈을 크게 뜨시고 두리번거리시면서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랜 인연을 맺어온 반기문 총장님의 귀에 익은 목소리.

학생들의 열띤 토론.

이로 인해 잠시 의식을 회복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엔 현장 전문은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현장엔 ‘평화의 방벽은 마음에 있다’라는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립자께서는 평소에 이 문구들을 소중히 생각하셨습니다.

지구 의제를 풀어나가는 세계 시민의 역사적 주체성.

평화의 과업을 향한 지구 시민의식.

그 정신으로 유엔과 세계 시민이 평화의 과업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 전환의 시대, 지구 시민 의식의 미래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환의 실체는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긍·부정 국면이 교차합니다.

인류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가 손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

초 인공 지능과 아원자 단위의 정보 연산이 조만간 가능해질 시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빅뱅 직후 시간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시대.

그 시대의 도래로 인류사회는 전례 없는 '가능의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또 다른 시대의 양상도 있습니다.

지구 사회 안위에 관한 실존적 심려가 전례 없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엔 하루 5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인구가 35억 명에 이릅니다.

1달러 내외로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지구 인구의 약 9%, 7억 명에 이릅니다.

2022 기준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발표처럼, 그분들은 말 그대로 '기아 상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 사회 불균형이 심화하면 정치·사회적 혼돈과 국제정세 불안이 가중됩니다.

미주에서, 유럽에서, 사실상 지구 행성 거의 모든 곳에서 불안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간 국제 사회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구 사회 취약 지역, 취약한 이들을 위한 지원과 대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The Elders의 헌신적 노력 중 하나는 지구 사회 취약층을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난, 식수난, 생활난에 처한 수많은 이들.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패 권력.

이에 맞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찾아, 더욱 심각해지는 식량난, 식수난, 풍토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기후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취약 국가, 취약층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기후 위기는 특정 지역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구적 차원의 실존적 위협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폭염, 폭한, 가뭄, 폭우와 같은 극한의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우나로아 기상 관측소에 계측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424ppm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만 년 간의 그래프를 보면, 산업혁명 후 CO2 상승세는 대단히 가파릅니다.

어느 기후학자의 말처럼, 마치 '하키 스틱'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강력 온난화 물질인 메탄 증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 분석에 따르면, 이제 곧 그간의 상승세를 넘어, 해저에서, 동토층에서 급작스러운 대규모 분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분출 사태.

시점은 언제일까?

온전한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후 변화의 한계점, 섭씨 1.5도를 이미 넘어선 오늘의 상황에선, 불과 한 세대 내, 혹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 대규모 분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상 동식물 거의 80%가 멸종한 4차 대멸종 기인 Triassic-Jurassic Extinction 때는 대기 중 추정 탄소량이 2,000~4,000ppm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지구 행성의 메탄 증가량을 고려하면, 이산화탄소 환산치(CO<sub>2</sub>e)가 2027년경 그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6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환경의 날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다  
출구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

기후 문제는 이제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인류 실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실존적 위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사회 언론 매체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 핵 문제입니다.

가닥을 잡지 못하는 국의 표출과 지역 내, 세계 내 패권 문제.

혼돈에 빠진 국제정세.

우리는 지금 1945년 이래, 상상하기 싫은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에서도 언급했지만, 세계원자과학자협회(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는 이 시대의 위기를 상징하는 Doomsday Clock을 0시 90초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몇 주 전 미 의회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펜타곤 내 UAP 조사팀 AATIP(Advanced Aerospace Threat Identification Program) 책임을 맡던 한 인사의 증언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UAP는 실재한다.”

지구상 “어떤 정부도 만들지 않은 첨단 기술이 전 세계 민감한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있다.”

두 주 전, 또 다른 사건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펜타곤 출입 기자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브리핑 석상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대서양 방위에 핵심적인 미 공군기지에 2주에 걸쳐 정체 모를 드론 수십 기가 머물렀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당국 대응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 답변은 이랬습니다.

Langley 공군기지 상공에 10여 기 이상의 정체 모를 드론이 출현했다.

적대적이지 않았다.  
별 다른 조치는 없었다.

주요 군사기지에 등장한 정체 모를 드론의 출현.  
당국의 무대응.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지구상 핵탄두 사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국제 사회는 이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의 기류가 빠릅니다.  
어느 원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재앙과 의식 간 경주에서 무엇이 승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더 덧붙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구촌 수많은 이들이 고통에 절규하고, 인류의 실존적 위협이 나날이 긴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전환의 파고를 헤쳐갈 길은 어디에 있을까.  
답은 명백해 보입니다.  
세계 시민의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실존적 위기를 맞아 인류 공동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지구 의식과 실천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의 현대 사회는 관심과 생각, 지식의 지평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습니다.  
놀라운 과학기술이 존재합니다.  
그 지구적 추이와 성과를 진전시켜 나가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어느 과학철학자의 말처럼, “생존의 지상 명령(survival imperative)”일 수 있습니다.  
그 과업 앞에 새로운 지성과 지혜가 살아 숨 쉬는 세계.  
그 세계는 나와 이웃, 사회와 세계, 지구와 우주를 전일적으로 성찰하는 지구 행성 의식이 살아 숨 쉴 때,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미원평화상 첫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념사를 마무리하면서 The Elders 설립자와 경희학원 설립자의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은 정중해야 해,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해.”  
“우리는 건설자니까.”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

The Elders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 더 넓은 지혜, 더 큰 용기, 더 나은 인간의 문화 세계를 함께 열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